

BLOUIN ARTINFO

인터뷰: 바티 커, 국내 첫 개인전에서 ‘기형’을 탐구하다



사진촬영=키스 파크/사진제공=국제갤러리
바티 커, 한국 첫 개인전 “Anomalies” 전시장 국제갤러리에서.

Language
Korean

:

글쓴이 Lee Hyo-won
Published: 13 9월 2013

서울 — [바티 커](#)(Bharti Kher)에게는 예술가로 활동한 20여 년간 페미니스트, 신화 작가, 유사 인류학자 등의 다양한 이름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이 런던 태생 인도 작가는 항상 이러한 분류를 초월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녀의 다면적인 조각품, 설치작품, 액자에 담긴 평면작품도 마찬가지다. 바티 커의 작품은 강렬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하며 종종 신화적인 동시에 매우 개념적이고 심미적이다.

바티 커의 한국 첫 개인전은 [국제갤러리](#)에서 10월까지 계속되며, 스타일과 구성이 다양한 10점을 선보인다. 그러나 모든 작품이 전시 제목과 같이 “Anomalies(기형)”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블루인 아트인포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시사적인 사건, 작품을 위해 만들어낸 신화, 그리고 빈디(bindi)와 더불어 그녀가 선택한 특유의 표현 수단 사리(sari)를 최근에야 입게 된 일 등을 이야기했다.

한국 첫 개인전을 위해 작품을 어떻게 선정했나?

나는 장소를 고려하여 어떤 작품이 적합하며 그곳에 대화를 창출할지 생각해본다. 이 나무 (“Solarum Series I”, 2007/2010)는 약 5년 된 작품이니 정말 오래됐다. 적어도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오래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야기거리가 가득해서 아주 조용한 말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2012–13)과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항상 동시에 40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 어떤 때는 한 점을 완성하는 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가능하면 모든 전시에 “Anomalies”라는 제목을 쓰려고 한다. 아시아 사람들은 진정으로 신화를 이해한다. “Anomalies”는 사물이 언제나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기능과 명분이 항상 동일하지 않으며, 항상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양상을 다룬다. 작품명을 신화를 이용해 짓기도하는데 사람들은 그 신화가 실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거짓 말이다(웃음).

빈디 사용에 대해 수도 없이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 안 하고 싶지만, 빈디는 당신을 끝 없이 매혹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상투적인 문화적 상징을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형시키는 방식이 놀랍다.

작품의 재료로 빈디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빈디로 작품을 만드는 물리적인 행동에도 의미가 있다. 빈디는 세 번째 눈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Sequence”, 2013처럼) 반사면에 패턴을 만들 때 사람은 반사된 자기 모습을 보는데 이때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고 본인도 남에게 보이는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 또한 아주 많은 색과 시퀀스를 만들 수 있어서 빈디를 무척 좋아한다.